남 편 자 랑

저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38세의 주부입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남의집살이서부터 안해 본 고생이 없다가 버스 차장을 할 때 그 회사 스페어 운전사로 있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를 끔찍하게 위하며 사랑한다는 남편이 어찌나 좋은지 그 사람 없인 살 수 없겠다 싶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마음은 착한데 놀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화투치기를 즐겨,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병원비용도 남기지 않고 술이요 화투판이였습니다. 생활력이 강한 저를 믿었는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주인집 시끄럽다고 할까봐 소리도 못 지르고 혼자서 아기를 낳고 탯줄을 자르면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때 내가 죽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람 만들든지 지금 작정 안하면 다 망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양식이 떨어졌으니 저는 굶겠다고 곡기를 끊어버렸습니다. 설마 했던 남편이 제가 이틀을 굶어내자 부랴부랴 뛰어나가서 쌀과 미역을 구해 들고 들어 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 구해다 주면 먹고 구해 주지 않으면 굶는 생활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생활력이 있어 뛰어나가 과일장사라도 하면 굶진 않겠지만 앉아서 굶은 것 입니다. 어느 새 닷새를 굶고 나서 쌀밥 냄새에 짐승같이 우는 저와 아이를 보고 남편은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도 제대로 나가서 월급을 술값이나 도박에 탕진하는 일도 드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쉽지 그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저 배고프면 저 알아서 밥 빌어먹겠지 하고 저를 얼마나 남편이 시험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마다 죽기를 각오하고 굶으면서 견디었습니다. 그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고 울면서 굶은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그이 몰래 밥 한 숟가락 먹지 않고 돈을 꾸어서 쌀을 산 적도 없이 죽기를 각오하고 굶은 것입니다.

그런 제마음이 그이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이도 차차 근면한 사람이 되어 갔고 몇 년 후 그이가 미덥다 싶을 땐 저도 아이를 업고 뛰어나가 풀빵장사를 비롯 안 해본 장사가 없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1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조그만 양품점도 갖게 되었고 그이는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되었으며 산비탈 작은 집이지만 우리집도 마련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년 봄부터는 남편이 제 공부까지 시켜 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제 평생 소원이 공부 해보는 것인데 그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 봉천동 순임 엄마 -

교회목표	'99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교회생활지침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City 한인교회	누가 10:37
	City Korean Presbyterian Church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1권 8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1999년 9월 3일

☎(64-9)262-3717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목사님! 대답해 주세요

아들이 서원했는데 걱정이 됩니다.

Q)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최근 서원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아들이 선교사가 되도록 그 동안 기도를 해 왔지만 아직은 걱정이 됩니다. 더 성장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인 것 같은데 벌써 서원을 하니 겁이 납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A) 훌륭한 아들을 키우고 계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교사가 될 것을 벌써 하나님께 서원했다니 특별한 은혜를 입은 아들입니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이 아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중학생 때에 벌써 삶의 목적이 생겼다는 것은 꿈이 생긴 것이고 사람은 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세계를 위하여 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장합니까?

셋째,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서원은 그 아이의 고귀한 마음입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오십 명의 청소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여러 해 후에 비행기를 타고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마흔 아홉 명은 한때 헌신한 적이 있기에 선교사가 못되어도 교회의 선교적 기둥들이 됩니다.

한 선교사를 위해서는 오십명 정도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들 중에 몇 명을 하나님께서 목사와 선교사로 부르시고 나머지는 어려서 헌신하여 일생을 주님께 충성하는 지역 교회의 좋은 지도자로 쓰십니다. 염려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어느 선교사는 중학교 때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여 결국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구라파 지역 선교를 지원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 일 예 배

오후 1:30

*묵 도 Silence		다 같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4 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8 (시 19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318 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서백화 권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 4:1-11	
복 음 송 가 Praising	주 처음 만난 날	다 같 이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설 교 Sermon	-광야에서 성전으로-	김성국 목사
설교후 기도 Prayer		
찬 송 Hymn	359 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 이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계속 됩니다)

일자	기 도	헌금봉헌	예배안내	Tea time
5	서 백 화	김 효	지 윤 수	안은주/김성국
12	지 윤 수	지 윤 수	한 건	김 효/유혜경
19		김 정 훈	김 효	안은주/한 건
26		한 건	한 건	김 효/지윤수

'99년도 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실천사항>

*신 앙: 기초성경공부이수
*주일예배: 정장으로 예배참석
*생 활: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하지도 맙시다

<등록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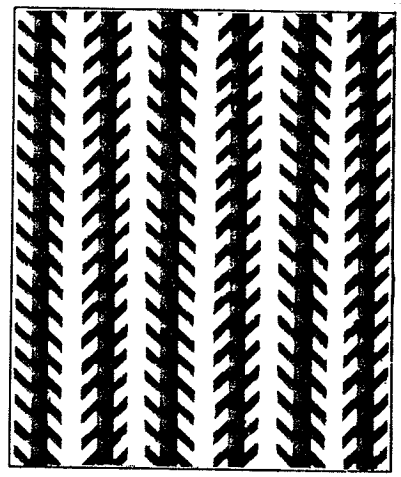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교 회 소 식

1 금주 금요구역예배(7:30 PM)
*지윤수 집사, 김 효 성도 가정
78 Sheriff Pl. Alfriston. ☎268-9300

2. 연말 Tax Refund를 위해 헌금은 헌금봉투에 넣어서 이름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무기명으로 헌금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신만 아는 4자리 고유번호(pin number)를 헌금봉투에 적어 주시면 헌금증명발급 근거자료로 하겠습니다.
3. 예배 후교회 목회방향과 내규에 관한 설명을 갖습니다.
4.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시 올갠 반주자 위해
5. 9월 방학기간에 가질 신앙캠프를 위해 좋은 장소(캠프장)를 알고 계신 성도의 정보를 기다립니다.(1-2시간 거리이내)

* *



그림의 다섯 선들은 비뚤어져 보이지만 비스듬히 세워 보면 실제 선들의 똑바로 서 있습니다. 비뚤어져 보이는 이유는 선에 붙은 장식선들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장식되어 있느냐에 따라 바른 세상이 비뚤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돌아봄 없이 세상만 탓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갈 6:1)-